

나의 구분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어떤 종류의 쾌락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쾌락 이외의 또 하나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치는 특정 인간관에 의해서 제공될 수도 있고 또한 특정 사회관에 의해서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또 하나의 가치를 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 쾌락과 쾌락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쾌락 그 자체,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쾌락계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쾌락의 양이 될 수 밖에는 없다.

밀은 “개성의 연마”(cultivation of individuality)<sup>17)</sup>를 중시하는 새로운 인성론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쾌락 이외의 또 하나의 가치를 공리주의 체계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두번째 수정이다. 밀은 벤담의 쾌락주의 심리학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기적 쾌락주의에 머무르는 인성론의 불충분함을 지적한다. 벤담이 간과했던 점은 인간은 “정신적 완성을 목표로 하여 이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밀에 의하면 인간은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는 “진보적 존재”이며, 참된 의미에서의 공리성이란 이기주의적 쾌락주의만 근거할 수 없는 것이고 “진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항구적 관심에 토대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공리성이 되어야만 한다.<sup>18)</sup> 그는 삶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조화로운 성장”을 최대한으로 이룩하는데<sup>19)</sup> 있다고 갈파한 콜리지의 이른바 자아 실현의 윤리학을 받아들인다. “자유론”에서 밀이 제시하고 있는 자유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도 그것이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격의 성장과 완성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않는 소크라테스가 보다 가치있는 인간이라는 그의 금언도 능력의 개발을 통한 “개성의 연마”만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자아 성장 이념의 틀 속에서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

자아 성장의 이념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유론」(On Liberty)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밀의 논의에서도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법에 대한 흄이나 벤담의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에게 있어서 자아 성장의 권리는 자연적 권리일 수 없다. 그것은 공리성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권리다. 왜냐하면 개성의 자유로운 개발은 인간의 행복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밀의 개인주의적 자아성장의 이념은 사회발전의 이념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다. 자유로운 자아 성장은 개인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sup>20)</sup>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의 자유는 그것이 공동체와의 조화를 저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17) J.S. Mill., On Liberty, New York, 1966, p. 56.

18) *Ibid.*, p. 9.

19) Samuel Taylor Coleridge, Constitution of Church and State, R.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London, 1960, p. 61에서 재인용.

20) J.S. Mill. *op. cit.*, p. 50.

그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자아 성장을 위한 노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사회발전과 사회적조화라는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면 그러한 만큼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밀의 자유론은 두개의 상호 연관된 원칙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다. 즉 개인은 그의 행위자인 자신 이외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이해에도 관계되지 않는 한, 제재를 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야 하고 사회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또는 법률적 방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밀의 “사회 발전” 또는 “사회적 조화”의 개념속에 도사리고 있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사이의 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발전과 공동체적 번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개인의 보다 완숙한 자아 성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자아 성장의 산술적 합산인가? 또는 개개인 자아 성장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실현되는 보다 유기적인 전체인가? 밀은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대로 밀은 벤담의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가였던 콜리지와 콜리지를 통해서 버어크와 독일 관념론자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개인에 대한 전통의 표현으로서의 국가의 우위에 대한 이들의 견해에 대하여 동정적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였다. 밀의 과제는 콜리지가 대표하는 관념주의적 사회 사상의 전통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전 쾌락주의의 전통에 접목시켜 시대적 상황에 보다 적실하고 보다 풍부한 인성론을 바탕으로 한 공리주의적 종합을 성취하느냐에 있었다. 밀의 자아 성장이념은 이러한 관념론적 사회사상의 보다 직접적인 영향이며, 사회발전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영향의 증후를 볼 수 있다. 그의 기본적 개인주의에도 불구하고 밀은 공리주의는 “인류의 사회적 감성”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감성이란 “동료 피창조물들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며, 이러한 사회적 상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필연적이고, 또한 몸에 밴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밖에는 그 자신을 상상하지 않는다”.<sup>21)</sup> 이러한 사회적 감성은 인간의 본성 자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최대 행복의 윤리학도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말년이 가까와오면서 밀의 공동체적 관심은 보다 강화되었으며, 특히 사회 입법에 대한 그의 주장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그는 개개인의 자아 성장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사회적 제재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거기에는 매음이나, 독약 매매, 술주정이나 도박 등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자아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의 분배나 교육 또는 공공위생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허용하는 사회입법까지 포함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이 되는 자유 방임주의 정책까지도 사실상 포기

21) J.S. Mill., *Utilitarianism*, p. 46.

하고 있었다. 밀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사회주의적으로 기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밀에게 있어서 번람과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의 전통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으며, 그의 강조점은 개인주의적 자유의 정초에 보다 분명하게 주어지 있었다. 사회 발전도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자아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 입법을 통한 정부의 개입은 그것이 개인적 자아 실현의 장애를 제거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에 있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밀은 공동체적 관점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그의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의 전통에 대한 집착과 연대감은 이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수용을 어렵게 한 듯하다.

## Ⅶ. 공동체와 자아실현

19세기 영국 사회사상에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적 관점이 보다 본격적으로 주체화되는 것은 버어크와 콜리지의 논의를 이어받으면서 독일 관념론을 수용하는 이른바 옥스포드 관념론자들, 특히 그린(T.H. Green, 1836~1882)의 자아 실현(self-realization)의 이념이다. 관념론적 전통 특히 칸트의 선형적 관념론의 토대 위에서 그린은 록크로부터 시작되는 영국철학의 연상심리학적 전통과 번람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전통을 비판했다. 경험주의의 혁신을 이루는 이 두가지 전통은 다같이 인간의 정신을 의제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자르 및 피락과 고통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로서는 능동적 주체가 아닌 “피지”에 불과한 수동적 용기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린에 의하면 인간 정신에 대한 이러한 경험주의적 이해는 예술, 종교, 그리고 종교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삶을 단축스럽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오직 인간 정신을 능동적 주체로 보는 관념론적 관점만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감각적 경험이나 피락 또는 고통은 자연의 한 부분들이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대한 의식 그 자체가 자연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신의 능동적 종합의 기능은 그것이 종합하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감각적 경험을 종합하는 정신은 그것에 의하여 종합되는 감각적 경험들과 같은 차원의 것이 될 수 없다. 정신은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으며, 어떠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의미에서 자연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자연이 어떤 유한적 정신의 종합 능력의 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포괄적이고 영구한 정신의 존재, 즉 신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의 유한적 삶은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영구하게 완전한 정신의 도구”<sup>22)</sup>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관념론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논의를 근거삼아 그린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인간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옥스포드 관

22) T.H. Green, Prolegomena to Ethics, London, p. 22.

념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 즉 고대 회랍 철학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 그린이 제시하고 있는 자아 실현의 이념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베타미 말하고 있는 만족이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린이 말하고 있는 자기 만족은 쾌락이 아닌 자아 성취이다. 그는 “모든 도덕적 행위의 목표로서의 자기 만족의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쾌락의 추구”<sup>23)</sup>를 구분하면서 개개인의 능력의 조화로운 실현이 쾌락의 추구하고 동일시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한갓 감성적 유기체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정신적 주체이다. 쾌락은 자아 성취에 있어서 하나의 부산물일 수는 있어도 자아 성취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린의 자아 성취 이념은 또 다른 형태의 개인주의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미 그의 인식론 및 존재론에 있어서 시사되고 있듯이 그린의 집단주의적 인식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린이 의하면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사회적이다. 자아 성취는 개개인의 고립된 원자적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개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은 오로지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개개인의 도덕적 과업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천되는 것이며, 따라서 “각자는 일차적으로 그의 위치가 부여하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sup>24)</sup> 그리고 그린이 말하고 있어서 개인적 자기 실현의 장으로서의 공동체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헤겔이 생각했듯이 정치적 공동체, 즉 국가이다. 모든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목표가 개개인의 자아 실현이고, 자아 실현의 원칙은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존재는 하나의 도덕적 요청이고 필연이다. 그것은 국가와 같은 큰 단위의 공동체뿐만 아니고, 가족과 같은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린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관은 국가 그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보는 헤겔 우파류의 국가 지상주의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린이 있어서 국가는 목적이 아닌 하나의 도구로서의 도덕적 요구라는 것이다. 국가는 개개인이 각각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기능을 가진 공동체이다. 그린의 국가관의 핵심은 개인과 그가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있는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성이다. 개개인의 자아 실현은 공동체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국가를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원 위에서 균형을 자족적 실체로 만들어 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삶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으로서의 존재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기”<sup>25)</sup> 때문이다.

그린의 국가주의적 관점은 국가의 기능을 개개인의 자아 성취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23) *Ibid.*, p. 159.

24) *Ibid.*, p. 192.

25) *Ibid.*, p. 193.

유지하는데 두었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사회 입법에 반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벤담에 의하면 모든 사회 입법은 본질적으로 개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따라서 권리에 대한 분쟁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했듯이 19세기의 진전과 함께 산업화의 고도화와 이에 따라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회 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입법은 대부분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자유주의적일 수가 있는가? 자유주의는 모순적인 개념인가? 그린에 의하면 이러한 물음은 자유의 개념을 “제한의 부재”로 자의적으로 한정시킬 때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자유는 한갓 “소극적” 자유에 불과하다. 참된 자유, “적극적” 자유는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그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그 사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선에 기여하고, 그 사회가 생산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참된 자유는 인간의 자아 실현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린의 자유주의는 자아 실현의 보다 충실하고도 광범위한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소극적” 자유 개념에 근거한 자유방임주의는 하나의 교조에 불과했으며, 자유주의가 사회 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회 입법의 기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 폐락주의를 넘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정초가 필요했다. 그린은 이러한 새로운 정초의 단서를 밀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아 실현의 이념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경험론적 전통에 충실하고자 함으로써, 이 이념을 19세기 자유주의 이념의 큰 흐름 속으로 통합시키는데 실패한 밀의 경우와는 달리, 그린은 그 이념을 외래 사상, 즉 독일 관념론이 제공하는 공동체적 관점에 접목시킴으로써 자유주의 이념을 보다 확대하고 활력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 VII. 맺 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19세기 영국 사회사상에 개인과 국가의 역동적 관계를 소묘했다. 이러한 소묘는 사실상 근대적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정초과정과도 일치한다. 개인주의적 관점과 국가주의적 관점은 영국 이외의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나라들 뿐만 아니라 뒤늦게 산업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혁명적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의 성과를 착실히 쌓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에 수반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아갔다. 19세기를 영국의 세기'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아마도 근본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 두개의 이념을 점진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자유주의 이념의 큰 틀 속으로 끌어들이고 조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영국 사회 사상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이념적 통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 어디에서도 완성된 해결의 모형을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영국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그들 고유의 사상사적 전통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래 사상의 수용을 통하여 주어진 구체적 현실의 과제에 접근함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는 점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aron, R.I., John Locke, Oxford, 1955.
- Anschutz, R.P., The Philosophy of J.S. Mill, Oxford, 1953.
- Bentham, J., A Fragment on Government, (Ed. by F.C. Montague), London, 1951.
- Bentham, J.,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Ed. by L. Lafleur), New York, 1948.
- Burke, 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London, 1971.
- Cone, C.B., Burke and the Nature of Politics, Lexington, 1957.
- Coplestone, F., A History of Philosophy, Vols V and VIII, Westminster, 1961, 1966.
- Green, T.H., Prolegomena to Ethics (Ed. by A.C. Bradley), London, Halevy, E., The Growth of Philosophical Radicalism, London, 1928.
- Locke, J.,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by P. Laslett), Cambridge, 1960.
- Macpherson, C.B., Democratic Theory, London, 1973.
- Mill, J.S., Mill on Bentham and Coleridge, (Ed. by F.R. Leavis), Cambridge, 1980.
- Mill, J.S., On Liberty, (Ed., With an Introduction by C.V. Fields), New York, 1966.
- Mill, J.S., Utilitarianism, London, 1950.
- Plamentaz, J., The English Utilitarians, Oxford, 1949.
- Sabine, G., and Thorson, T.,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4th Ed.), Hinsdale, 1973.
- Trevelyan, G.M., British History in the 19th Century and After, 1782~1919, London, 1956.
- Williams, R., Culture and Society, 1790~1950, London, 1960.

##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in the 19th Century English Social Thought

—a resume—

**Yersu Kim**

This paper attempts to show how two points of view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laissez-fairism and etatism—interact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forces unleash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England to produce modern liberal democratic philosophy. This attempt is carried out by examining the problems faced by, and the philosophical synthesis forged by a succession of English social philosophers—John Locke, Jeremy Bentham, Edmund Burke, J.S. Mill and finally T.H. Green.

Locke sets the stage for the dialectics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by tracing the origin of political authority not to the divine rights but to the social compact amongst free and equal individuals endowed with natural rights to life, liberty and property. In order to circumvent the tendency toward a free for all due to inherent greed and partiality in men, individuals enter into a social compact to create a government with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Here the tension between individualism and rejection of anarchism inherent in individualism which characterized English liberalism comes to surface. As a 18-century social philosophers concerned with abolition of absolutism, however, Locke gave clear philosophical priority to individual rights. He sough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these rights in natural law. Such a view however was clearly in conflict with Locke's epistemology, according to which experience was the sole source of knowledge and truth. As the 18th century advanced, it was clear that Locke's individualism needed to be provided with a better philosophical foundation.

The principle of utility based on hedonistic psychology was able to provide just such a philosophical justification to individualism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early 19th century England characterized by anti-metaphysical and empiricist spirit. While repudiating the natural law of medieval metaphysics, it was able to retain the respect for the rights of individual and the advocacy of radical reforms characteristic of Locke's liberalism. It

served in fact as the philosophical basis for the radicalist movement of the early 19th century in England.

The principle of utility—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together with hedonistic psychology on which the principle was based, provided just such a philosophical justification. By postulating the aim of government to be attainment of happiness of greatest number of individuals, Bentham's utilitarianism gave English liberalism a decisive push toward greater democracy. It served in fact as the philosophical basis for a large number of legislative and penal reforms in England in the early phas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conflict however between the altruistic tendency inherent in the utility principle and the egoistic tendency inherent in hedonistic psychology should not go unnoticed. The hedonistic calculus requires that my pleasure and pleasure of others should have equal value. Yet it is far from clear that the pleasure of others can play the motivational role that my pleasure plays, at least to the same degree. It is the role of government and legislation to mediate whenever conflicts among pleasures arise. It became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psychology of quantitative hedonism was inadequate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 and community, particularly in view of the emergence of such social problems as urbanization and pauperization that concern not just individuals but the community as a whole.

The need for a communal point of view found early expression in the conservative political views of E. Burke. Basing himself on Hume's destructive criticism of natural rights, Burke advocates primacy of sentiment over against reason. Just as the liberals did, Burke advocated laissez-faire in economic policy, but for entirely different reasons. His position was based not on the primacy of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but on the primacy of community and state as concrete expression of tradition. Rights and freedoms are prescribed by the tradition as embodied in the long development of state, and members of that state are duty-bound to preserve them. Burke's vehement opposition to the French Revolution is rooted in his suspicion of abstract ideas in politics. French Revolution was an artificial attempt to put abstract ideas into practice. Such an attempt, according to Burke, is doomed to failure, because a community cannot survive without love and loyalty of its members, which can only grow in tradition. Burke's etatistic view point has a greater kinship with the idealistic tradition of continental Europe, particularly with romanticism, medievalism and ethnography of the late 18th century German thought. Burke's emphasis on tradition and stability, however, was an expression of a need for a



new synthesis in social philosophy that could adequately account for the changing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It finds its fruition in the more humanely based liberalism of J.S. Mill.

Mill's philosophical task was one of revising the principle of utility in such a way as to meet the needs of a society entering a more mature phase of industrialization. The revision was in essence two-fold. One was to recognize a qualitative differentiation among pleasures. Another was to accept the idea of self-realization as the standard with which to measure qualitative differences among pleasures. One pleasure is qualitatively superior to another, in so far as it contributes more toward realization of capabilities inherent in individuals. Since,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s a whole is not necessarily based on a simple addition of individualities, the common good of the society as a whole must place certain constraints on unlimited development of individuality. Mill's interest in the common good of the society became increasingly greater, and his advocacy of social legislation in late years was described even by himself as being socialist. The tension in Mill between the individualism inherited from the earlier liberal tradition and the communalistic tendency was an element in Mill's liberalism which, while making a theoretic integration difficult, gave a richer and more humane base to the liberalism based merely on hedonistic utilitarianism.

The ideal of self-real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dealist revision of liberalism in late 19th century by the Oxford idealists, particularly T.H. Green. For him the end of life was a complete realization of capabilities and potentialities of individuals. Such an ideal was based, unlike the earlier utilitarians of the empiricist tradition, on a collectivistic view of human nature, according to which individual fulfillment is possible only within a social framework. Such a framework is provided by the state. Unlike the absolute etatism of the Hegelian provenance, Green saw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in a mutual interactive process. The function of the state is to create and promote thos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self-realization of the individual members. Green thus opposed the classical liberalist conception of freedom as a mere absence of constraints. Positive freedom must be one that is consonant with the ideal of self-realization of individuals. The idealist revision of liberalism thus explicitly recognizes the role of the state in full realization of the individual self.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in the social thought of the 19th century England coincides with the founding process of democratic liberalism.

One of the essential reasons for the preeminence of Great Britain in 19th century was perhaps this successful balancing and integration of two essentially opposed ideas of the individual and the state in a gradual interactive process.